

# <세대게임: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서>

## 토 론 문

2018. 11. 21

서 복 경(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)

- 세대를 둘러싼 정치 동학과 정치 담론을 이해하는데 많은 배움을 주는 책, 특히 간명하고 쉬운 언어와 힘 있는 문체가 매우 매력적인 저서임.
- 3장에서 청년과 노년이 이미지 변화를 사회경제사와 학술사적 맥락에서 설명해준 부분, 4장 '세대 전쟁론'의 구성요소와 국내외적인 차이를 설명해준 부분에서 세대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야를 얻을 수 있었음.
- 정치학 전공자로서, 저서가 한국 정치의 '세대 플레이어'로 지목한 진보·보수 정치세력의 세대 동원 전략에 대한 역사적 맥락 관련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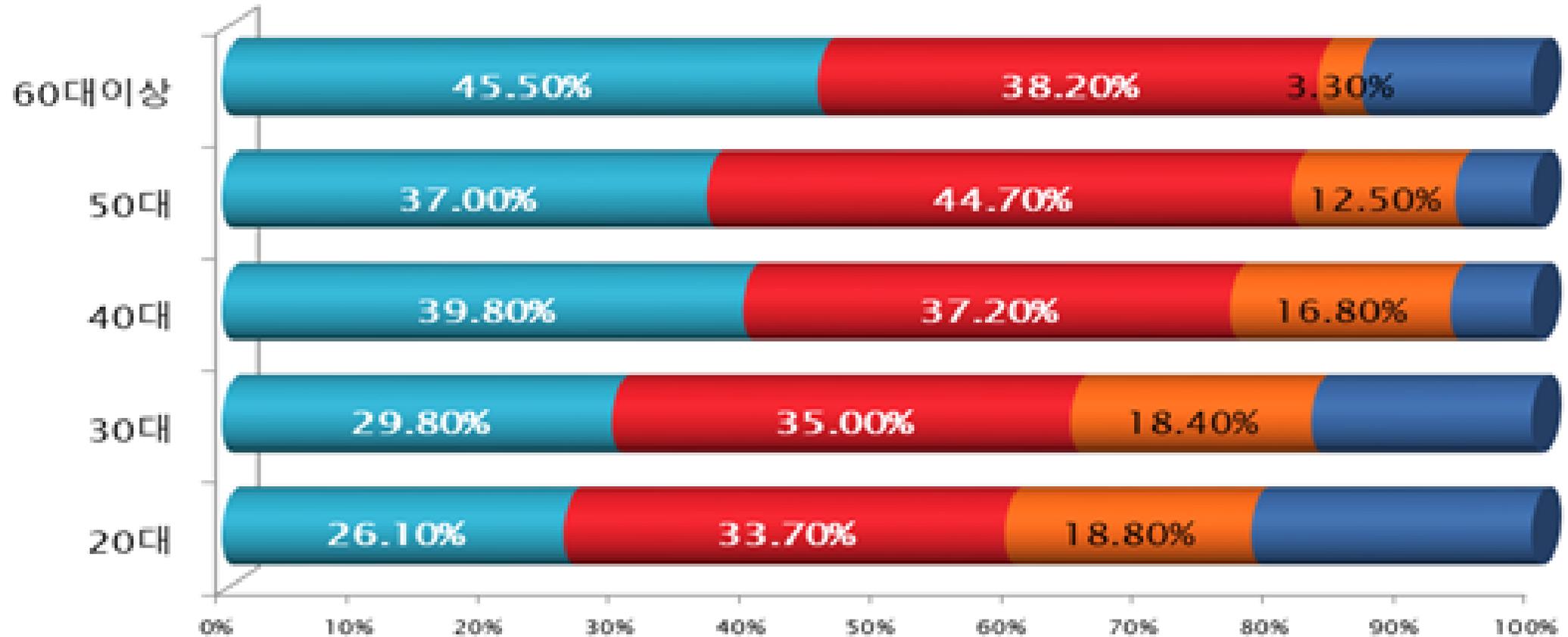
# 한국의 진보·보수 정치세력이 과연 능동적 '세대게임 플레이어'였을까?

Q) 2002년 40대와 2012년 50대 투표 성향의 차이는 왜?

A1) 장노년층의 보수화, 연령 효과(성경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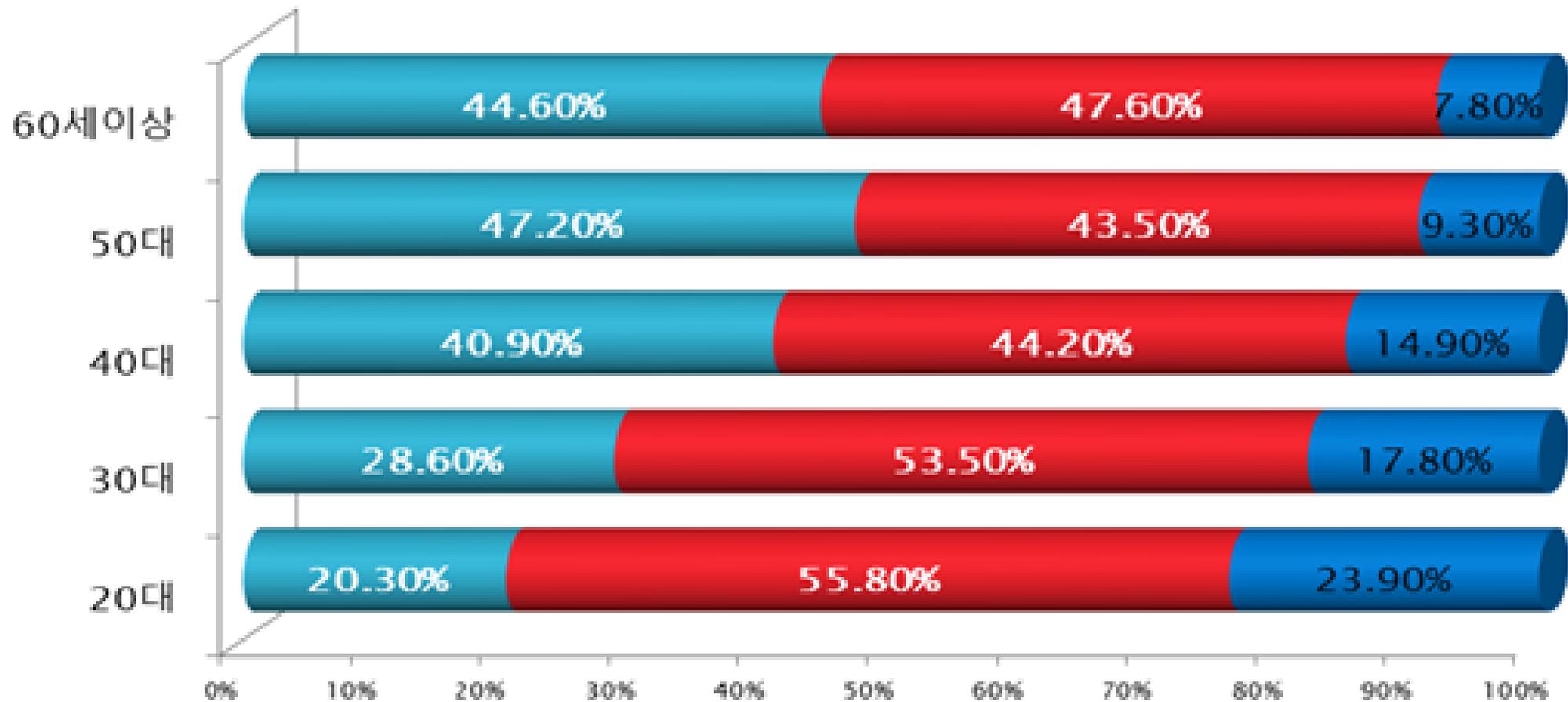
A2) 보수세력이 그들의 집합적 기억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..그 세대에게  
하나의 정치적 정체성을 제공한 결과(장신기)

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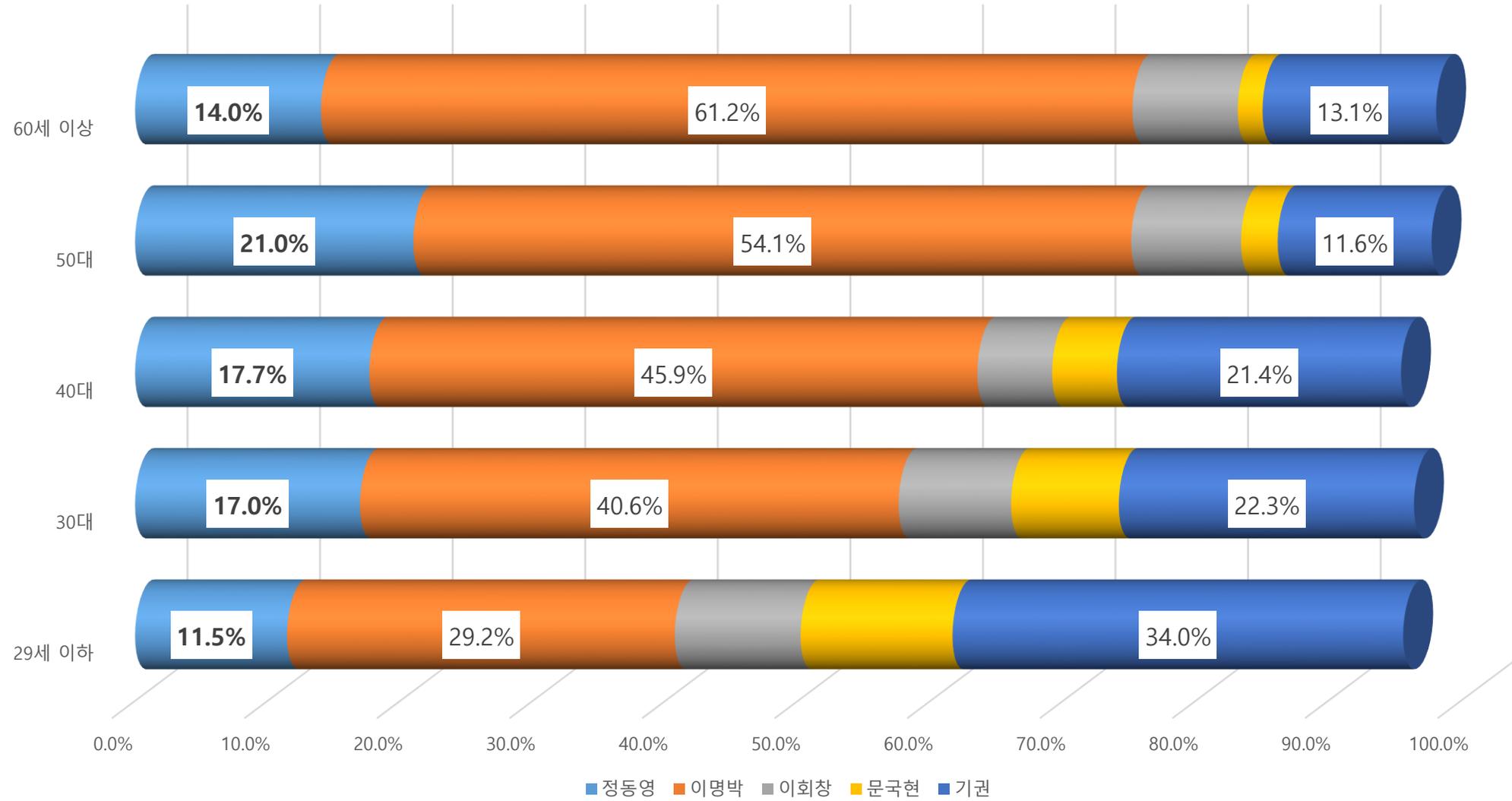


1997년 대선 사후조사, 한국선거학회

이회창 노무현 기타



2002년 대선 사후조사, 한국선거학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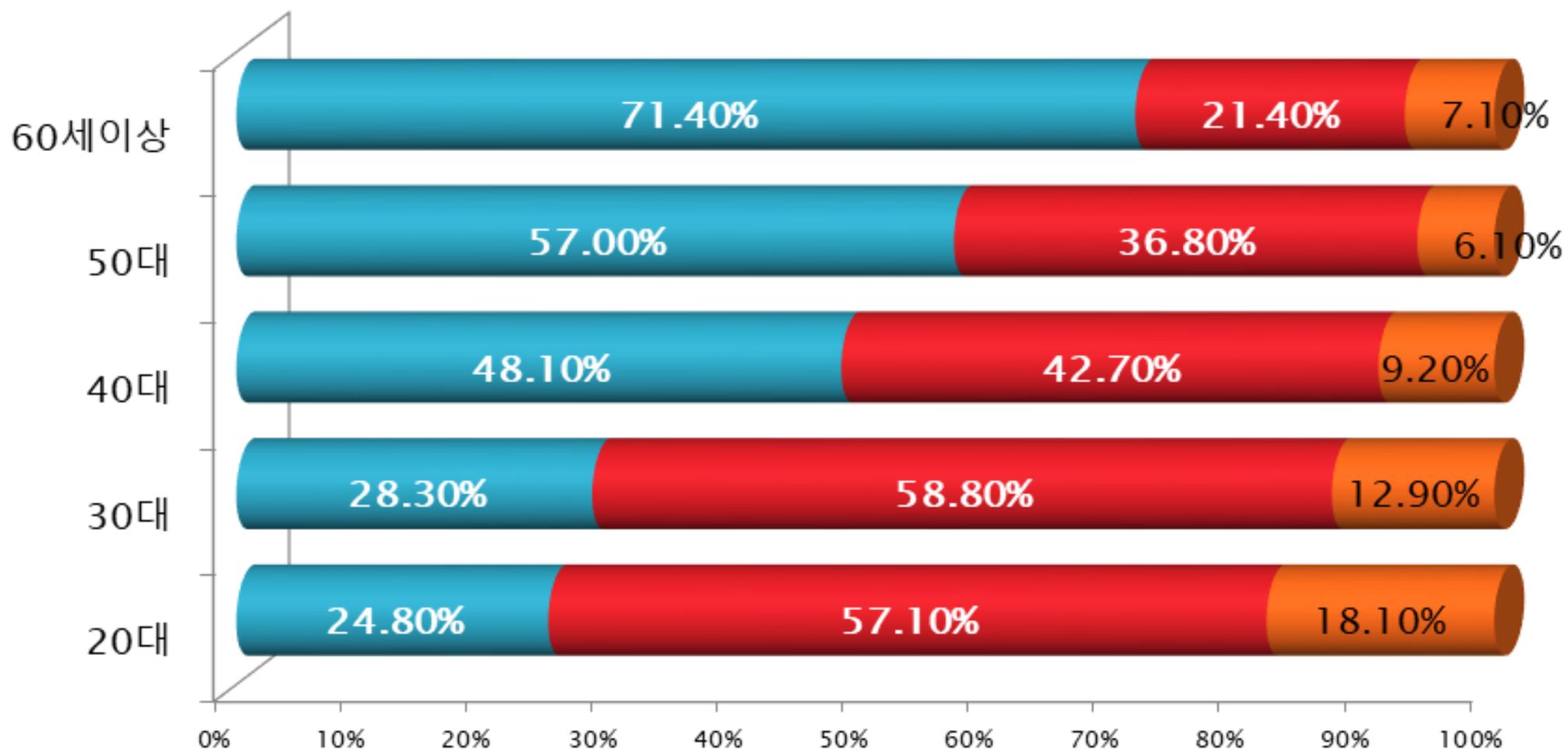


2007년 대선 사후 조사, 한국선거학회

- 노무현 정부의 탄생에는 민주화 이후 세대(당시 2030)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, 구세대(당시 권위주의에서 청년기를 보낸 세대)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.
-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패한 한나라당은 '잃어버린 100만 표'를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했어(대선 캠페인, 노무현 '용돈 연금' 발언).
- 대선 후 한나라당은 '노인 기초연금'을 주장했고, 참여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과정에서 '기초노령연금'제도를 입안,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하게 되어.
- 이 시기까지 고령 유권자 정책은 진보/보수 모두에게 '정체성의 정치'가 아니라 물질주의적 접근으로 볼 수 있어.

- 2007년 집권 열린우리당의 공중분해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기대를 걸었던 모든 연령층의 시민들을 실망시켰어.
- 2007년 대선 정동영 후보의 '노인 폼훼 발언'은 보수세력에게 빌미를 준 건 맞지만 에피소드적 사건. 정동영 후보는 모든 세대에서 거부 당한 것.
-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가 이명박 정부를 만들어낸 것.
- IMF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참아내면서도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이 참여정부의 실패와 열린우리당의 붕괴를 보면서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구체제로의 회귀를 받아들인 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탄생.
-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보수세력의 능동적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 계열 정당의 궤멸적 붕괴의 결과.

■ 박근혜 ■ 문재인 ■ 기타



2012년 대선 사후조사, 한국정치학회

- 2012년 대선에 대한 세대별 지지 결과 역시 '진보세력의 능동적 전략의 결과'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.
- 2007년 조직적 붕괴를 경험한 민주당 계열 정당은 2012년 대선까지도 조직을 복구해내지 못했어.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대선 3개월 전까지 '정치하지 않겠다'고 버텼어.
- 민주당 계열 정당은 스스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으로 비칠 수 밖에 없었던 조건. 게다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 문제로 계속 끌려 다녔어.
- 당시 대선에서 청년 정치 동원 전략을 가장 능동적으로 구사했던 건 안철수 후보. 2011년부터 '청춘 콘서트'로 전국을 휩쓸면서 지지기반을 만들어...

-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이후 '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'에 집중한 건 맞지만, 그의 관심사, 캐릭터의 특성, 인적 네트워크 풀의 성격 등으로 결과적으로 중장년층의 결집을 가져온 것이지 의도된 전략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.
- 집권 초기 그는 군 부대 방문, 군 장병 월급 인상, 청년희망펀드 등 청년층 어필 정책에 더 집중했고,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했으며, 정치적 수사에서도 고령층 타깃 전략을 구사했다는 경험적 증거는 약해.
- 집권 시기 대통령 지지율 변동을 보더라도, 세월호 사건, 메르스 파동,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 등이 있을 때마다 2030, 40대의 지지율이 순차적으로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50대 이상 지지층만 남게 된 것이지, 50대 이상 지지율이 특히 상승했던 국면은 없었어.

# 그럼 누구였을까?

- 2012년 대선 박근혜 캠프 '십알단'사건,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
-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, 경찰, 국정원 댓글 사건
- 전경련의 '어버이연합', '엄마부대' 재정지원 사건
- '에스더기도운동본부' 가짜뉴스 의혹, 유튜브 기반 가짜뉴스 채널들
- 세대동원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?
-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익추구행위들이 만들어낸 집합적 결과?